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3.29(금) ~ 2024.4.4(목)

제공일시 2023 04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3.29(금) ~ 2024.4.4(목)

제공일시 2024 04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물 쓰듯이 한다'는 옛말, 기후변화로 전 세계에 가정용수 사용 규제 퍼진다

- 미국과 영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향후 다가올 수자원 부족에 대비해 가정용 물 사용량까지 제한하는 규제 도입이 활발히 논의됨
- 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정부가 올해 가정용 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영국 정부는 앞으로 가정에서 세차 또는 정원을 가꿀 때 사용하는 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물 사용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언론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는 최근 주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의함.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수자원 사용량은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비즈니스포스트 2024.4.2) 손영호 기자

2. EU, 전기·전자제품 폐기를 지침 개정안 시행 예고

- 유럽연합(EU)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함.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재활용·재사용을 제고함으로써 순환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임
- 30일 코트라 'EU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개정안 관보 게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효할 예정임
- 코트라는 "해당 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EU의 순환경제 실현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EU 역내 출시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재활용·재사용을 제고함으로써 EU 순환경제 목표 실현이 기대된다"고 전함

(더구루 2024.3.30) 홍성환 기자

3. 美 생물보안법에 산업계 '들썩'... 국내 바이오 기업 수혜 받을까?

- 바이오 의약품이 국가 안보 영역에 포함되면서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며 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을 통과시킴
- 해당 법안이 최종 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미국 하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있어 머지않아 생물보안법이 글로벌 바이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조선일보 2024.3.31) 김동명 기자

4. 대만 의존도 낮추려는 美, 멕시코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한다

-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함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추진함.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기 위한 조치임
-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며 반도체 공급망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정책이란 평가가 나옴
- 2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멕시코와 공동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미국 정부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법(CHIPS Act)을 통해 확보한 5억달러(약 6765억원) 중 일부를 이번 협력안에 쓸 예정임

(한국경제 2024.3.29) 오현우 기자

1.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착한 페트병’ 한눈에

- 앞으로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골라 사면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덜 영향을 주는 소비가 가능해짐.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가 29일 시행됨
-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 그 비율을 알려주는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됨
- 라벨을 붙이지 않은 무(無)라벨 제품의 경우, 라벨 대신 삽입되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이 표시됨
- 환경부는 유럽연합(EU) ISCC 플러스(PLUS) 등 국제 친환경 인증제를 준용해 제도를 만들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을 표시하기 위한 추가 인증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비건뉴스 2024.3.28) 김유진 기자

2. 에너지공단,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이 중소기업의 국제적 기후환경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자율적 탄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고도화에 나섰다고 1일 밝힘
- 공단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과 ISO-14064 등 국제기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간이 MRV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오는 6월 말 배포할 방침임
-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과 탄소 관리 기초교육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임

(뉴스워커 2024.4.1) 조준성 기자

3. 온실가스 국제감축 활성화될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9일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고 환경부가 28일 밝힘
-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총 109억원을 투입함
-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나 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경우 최대 2억원과 4억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 42억원까지 지원함
- 세부 사항은 환경부(me.go.kr)와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연합뉴스 2024.3.28) 이재영 기자

4. 금융위, 미래대응 금융 TF 발족... “메가트렌드 대비”

-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업권 협회·유관기관·연구기관·학계 등과 함께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을 개최함
- 이날 TF 발족식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와 대응 과제에 대한 연구기관의 발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정책 토의가 이뤄짐
- 금융위는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별(인구·기후·기술) 세부 TF도 구성함.

(뉴데일리 2024.4.2) 이나리 기자

5. 서울시, 민간건물 탄소중립 첫발... ‘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도입

- 28일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4월에 도입한다고 밝힘
-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민간 건물임
- 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건 서울시가 처음임
-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 패널티가 없음

(이투데이 2024.3.28) 김서영 기자

1. MS·오픈AI, 135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재

-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가 135조원을 들여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9일(현지시각) 소식통 3명을 인용해 MS와 오픈AI가 2028년까지 1000억달러(약 135조원)를 투자해 첨단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고 보도함
- MS와 오픈AI는 5단계에 걸쳐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타게이트는 다섯 번째 단계에 해당함

(조선일보 2024.3.31) 류정 기자

2. 골드만삭스의 재생에너지 독립회사 MN8, 4393억원 조달

- 골드만삭스에서 독립한 재생에너지 기업 MN8에너지(Energy)가 전환우선주 사모를 통해 3억2500만 달러(약 4393억원)를 조달했다고 ESG투데이, 재생에너지뉴스, 비즈니스와이 등이 1일(현지시각) 전함
- MN8에너지는 미국 28개 주에 걸쳐 87개 이상으로 구성된 3.2G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270MW 이상의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EV 충전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음
- 자금 조달이 완료됨에 따라, MN8에너지와 머큐리아 에너지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형성함

(인팩트온 2024.4.3) 홍명표 기자

3. 도요타·혼다 등 日50개사, 전기차 배터리 제조데이터 공유

- 일본 자동차업체와 축전지 제조사가 올 봄에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전기차동차용 축전지 제조나 이용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함. 이는 미국, 유럽에서 진행되는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위해 사령탑 조직으로 조만간 일반 사단법인 ‘자동차·축전지 트레이서빌리티(제조 이력 및 유통 과정 실시간 파악 시스템) 추진센터’를 설립함
- 여기에는 도요타자동차와 혼다 외에 도요타와 파나소닉홀딩스의 합작회사인 프라임플래닛에너지&솔루션즈(PPES) 등 약 50개사가 참여할 전망이다
- 정보공유 대상은 당분간 축전지의 제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 측면과 아동 노동 등 인권 배려를 가시화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 한정할 방침임

(뉴시스 2024.4.1) 박준호 기자

4. 바스프, 중국 잔장 페어분트 공장 건설

- 바스프가 중국 광둥성 잔장에 위치한 페어분트 생산단지에 연간 생산능력이 4만6000톤에 이르는 세계적인 규모의 메틸글리콜(MG) 공장을 건설함
- 이 공장은 내년 말 가동 예정으로, 아태지역 내 빠르게 성장하는 브레이크 오일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것임
- 새로운 메틸글리콜 공장은 메탄올과 정제된 에틸렌옥사이드를 원료로 해 메틸디글리콜(MDG), 메틸트라이글리콜(MTG), 메틸테트라글리콜(MTEG)을 생산할 예정임

(데일리한국 2024.4.3) 김소미 기자

5. 파나소닉, 인도 최대 정유사와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 일본 파나소닉이 인도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현지 최대 정유회사인 인디언 오일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함
- 파나소닉은 인디언 오일과 JV 설립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힘
- 양사는 배터리 기술 활용법을 협의할 예정으로 올해 여름까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임
- 파나소닉은 인디언 오일과 JV 설립 배경에 대해 인도에서 이륜차와 삼륜차용 이차전지, ESS용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꼽음

(전자신문 2024.4.3) 이호걸 기자

1. 효성티앤씨, 1조원 투자해 베트남에 바이오 원료공장

- 스판덱스 세계 1위인 효성티앤씨가 베트남에 1조원을 투자해 바이오 원료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밝힘
- 연산 20만t 규모 바이오 BDO(부탄다이올) 생산 공장을 베트남 남부 바리아붕따우성에 조성함
- BDO는 효성티앤씨의 주력 상품인 스판덱스 섬유 원료(PMG)에 쓰이는 화학 소재임. 효성티앤씨는 2026년 상반기부터 연산 5만t 규모 바이오 BDO를 생산한다는 계획임

(조선일보 2024.4.4) 이정구 기자

2. SK하이닉스, 국내 기업과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 반도체 업계 최초

- SK하이닉스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기업 TEMC와 함께 반도체 업계 최초로 네온 가스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힘. 기술 개발에 나선 지 1년여 만임
- SK하이닉스와 TEMC는 노광공정 이후에 스크리버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던 네온 가스를 수집 탱크에 포집하고, TEMC의 가스 처리 과정을 통해 네온만 선택적으로 분리해 정제함. 이렇게 정제된 네온은 다시 SK하이닉스로 공급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됨. 현재 네온 회수율은 72.7%에 달함
-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제수율을 개선해 네온 회수율을 77%까지 높일 계획임

(천지일보 2024.4.1) 김정필 기자

3. 원익머트리얼즈, 美 오스틴 토지 매입... 북미 첫 특수가스 생산거점 마련

- 원익머트리얼즈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신규 토지를 매입함.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 인근임
- 원익머트리얼즈가 텍사스주를 신규 투자처로 낙점한 것은 삼성전자의 북미 주요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됨
- 반도체 특수가스를 납품해 양사 간 동맹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더구루 2024.4.1) 정예린 기자

4. 두산리사이클솔루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키운다

- 두산에너지리태가 지난해 설립한 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 '두산리사이클솔루션'의 배터리 재활용 사업 원료 공급처 확대에 나서. 29일 두산리사이클솔루션은 글로벌 전구체 시장 1위 중국 CNGR사와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에 관한 기본 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힘. 이번 협약에 따라 CNGR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된 2차전지 폐분말을 두산리사이클솔루션에 공급하고, 두산리사이클솔루션은 공급받은 폐분말에서 리튬을 회수 후 남은 NCM 원료를 CNGR에 제공할 예정

(중소기업신문 2024.3.29) 김성화 기자

5. SK오션플랜트, 세계 최대(94m·2200t) 고정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출

- SK오션플랜트가 제작한 세계 최대 수준의 고정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이하 재킷, Jacket)이 대만으로 수출됨
-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22년 8월 공급계약 후 2023년 1월부터 생산에 들어간 대만 하이롱(Hai-Long) 프로젝트 재킷의 첫 선적분을 고객사에 인도했다고 2일 밝힘
- 이번에 수출된 재킷은 현재까지 대만 해상풍력단지에서 설치된 재킷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함. 재킷 1기당 최대 높이는 아파트 약 30층 높이인 94m에 이르며, 무게는 A380 항공기의 약 8배인 2200t에 달함
- 하이롱 프로젝트 재킷은 첫 선적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수출길에 오를 예정임

(국토일보 2024.4.1) 이경운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3.29(금) ~ 2024.4.4(목)

제공일시 2024 04 1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5G 이어 풍력터빈도 중국산 배제한다... 명분은 '사이버 보안'

(인팩트는 2024.4.2) 이재영 기자

- EU가 중국산 풍력 터빈의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3월 29일(현지시각) 유럽 현지 언론 유랙티브(Euractiv)는 EU의 이런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안보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유럽 풍력 산업 보호에 있다고 보도함
- EU가 역내 풍력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사이버 보안' 이슈를 들고 나왔음. 이미 EU는 유럽 기업 보호를 목표로 유럽산을 증명하는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라벨링', 외국산 가격이 국내 유사 제품 대비 공정한 시장가치 이하로 책정됐을 때 부과하는 '반(反)덤핑 관세(anti-dumping tariffs)' 제도 등을 운영 중임
- 2023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EU 풍력 발전 패키지(Wind Power Package)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음. '비차별적'이고 '명확한' 요건을 도입해 공공 입찰에서 외국산 풍력 터빈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임
- 첫째,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사전 자격(pre-qualification)' 심사 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외국 기업을 잠재적으로 공공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기준에는 사이버 보안 준수 여부가 포함돼 있음
- 둘째, 정부나 공공기관은 풍력 발전의 용량을 배정하고 판매하는 공공 입찰에서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소재지와 같은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음.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 기업은 경매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셋째, 반 덤핑 관세도 적용됨. 공정 시장가격을 훼손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는 외국산 풍력 터빈에는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넷째, 국제 표준 채택임. EU는 풍력 산업에서 국제표준 준수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에 미달하는 외국 기업은 배제할 수 있음
- 유랙티브는 오는 4월 23일 EU 회원국 대표들이 풍력 발전 패키지가 포함된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이하 NZIA)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며, 2026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공공 입찰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도함. 다만, 아직 구체적인 요건은 정의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연내 더 세부적인 기술안을 담은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함
- EU가 풍력터빈에 보안 문제를 내세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터빈이 원격으로 관리되기 때문임. 장비가 손상되거나 고장이 날 경우, 관리업체는 터빈의 제어권을 확보해 조작할 수 있음
- 그런데 2023년 12월 중국 풍력업체 밉양 스마트에너지(Mingyang Smart Energy)가 세르비아의 풍력 단지에 150MW의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보안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것임
- 유랙티브는 중국산 5G 장비 사용 금지 권고로 스웨덴의 에릭슨이나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토종 기업이 수혜를 보게 되었다며, EU 풍력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반면,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악시오나 에너지(Acciona Energia)의 CEO 라파엘 마테오는 "터빈에서 얻을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며 "터빈 관련 데이터는 풍속, 출력 전력, 블레이드 각도 등 일반적인 운영 지표뿐"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전력망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모든 풍력 발전소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